



14 가상현실 시대의 문학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참인재대학 노춘기 교수

미리보기



- 목표 : 디지털 시대의 서정과 서사의 현황을 이해한다
 - 01 가상세계와 현대시
 - 02 막장 드라마의 기원
 - 03 <젊은 느티나무>, 금기를 뛰어넘는 사랑
 - 04 작품 비평과 피드백
-
- 과제 - 소설 <젊은 느티나무>에 대한 비평문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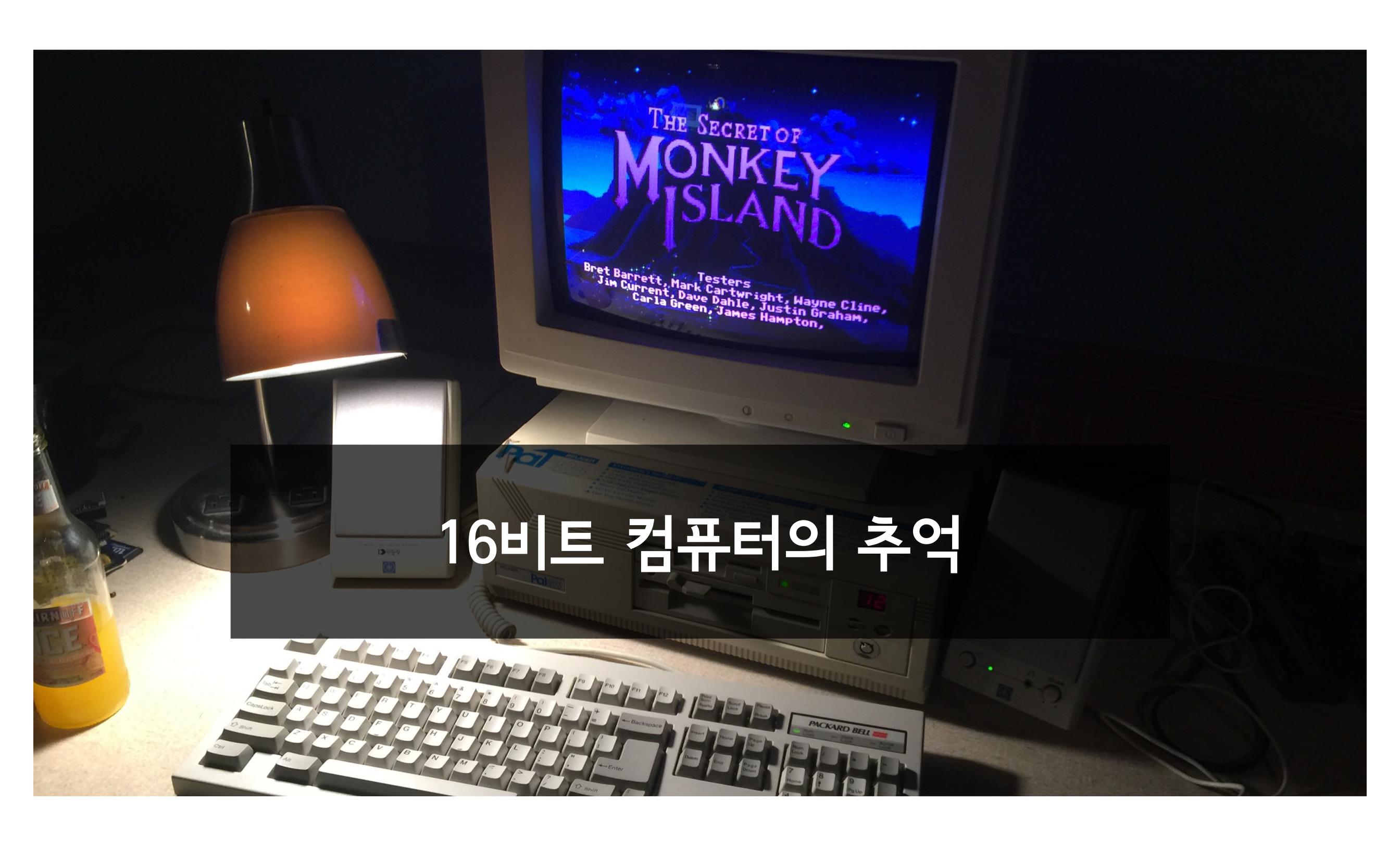
01

가상 세계와 현대시

디지털 시대의 시와 시인의 변화



플로피 디스크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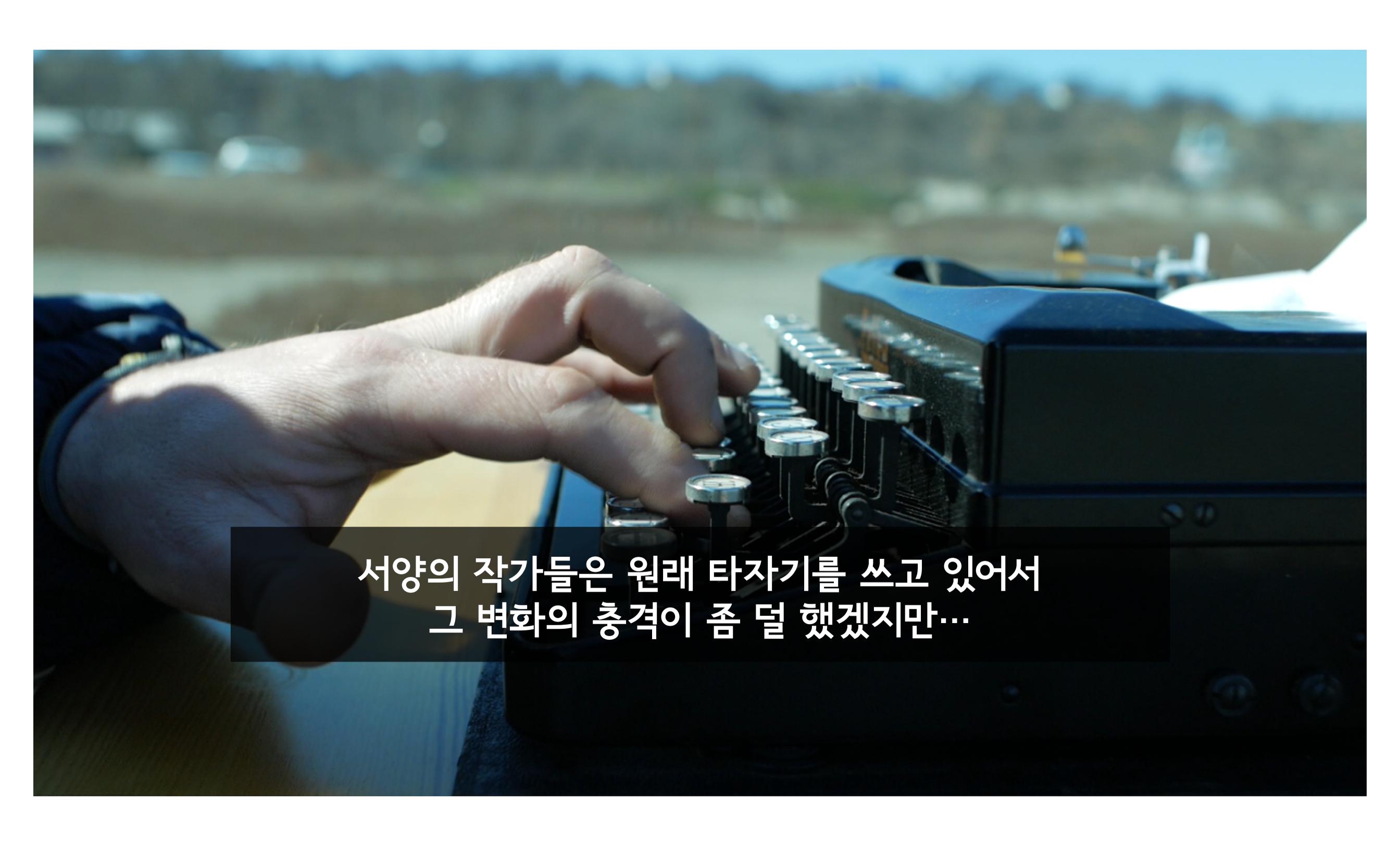
A vintage computer workstation is shown in a dimly lit room. The central monitor displays the title screen for the video game 'The Secret of Monkey Island', featuring the title in a stylized font and a list of testers: Bret Barrett, Mark Cartwright, Wayne Cline, Jim Current, Dave Dahle, Justin Graham, Carla Green, and James Hampton. Below the monitor is a beige system unit with a floppy disk drive and a digital display showing '12'. To the left, a mouse sits on a mousepad, and a keyboard is in the foreground. A desk lamp with a warm glow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mouse. A bottle of beer is visible on the far left. The overall scene evokes a sense of nostalgia for early personal computing.

16비트 컴퓨터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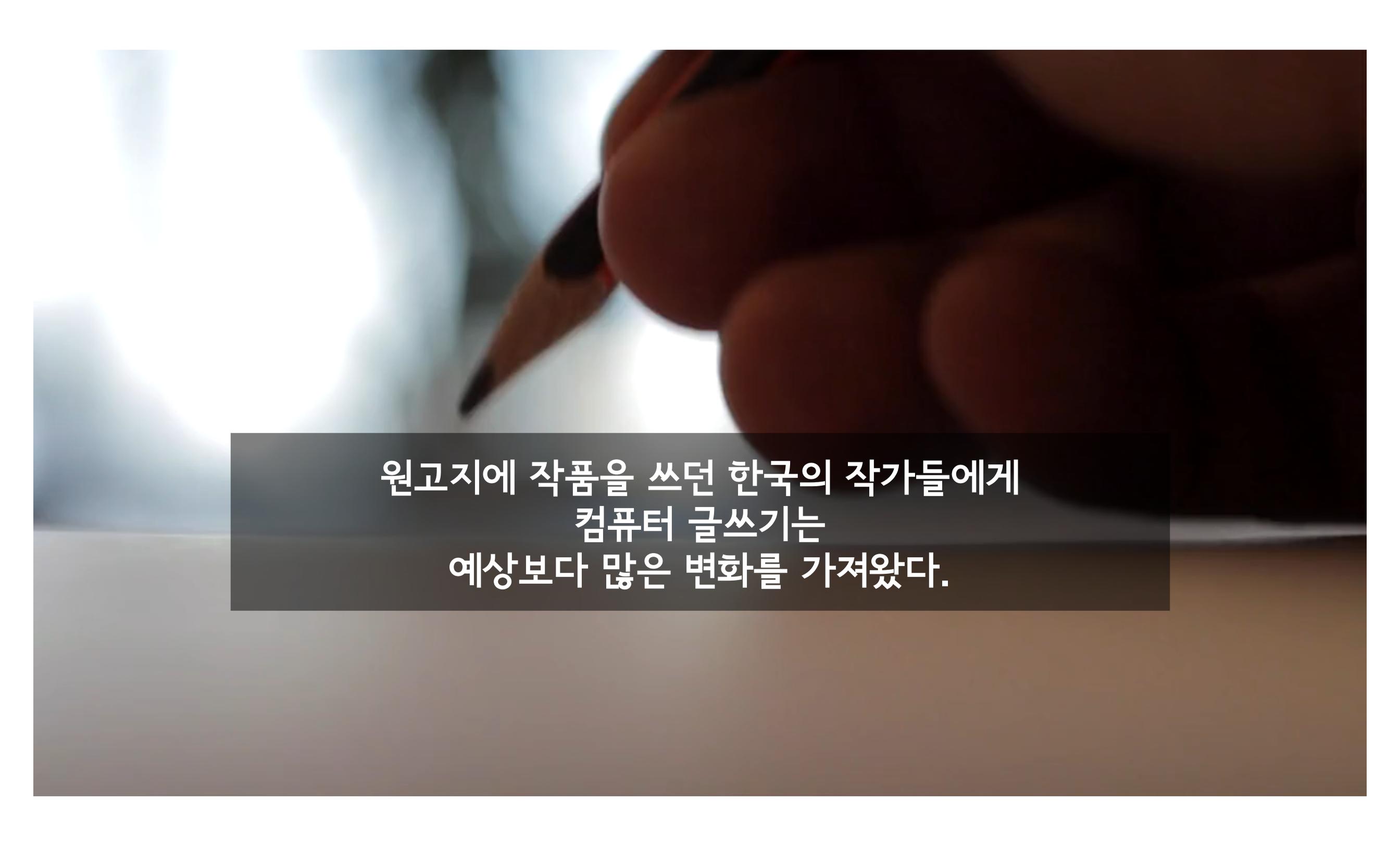
비디오/퍼스널 컴퓨터 / 하재봉



나의 사유는 16비트 컴퓨터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부터 작동된다.
모니터의 녹색 화면에 불이 켜지고
뇌하수체의 분비물이 허용치를 넘어 적신호가 울릴 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나의 손은 검다
부화되지 못한 욕망과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내 개인적
삶의 흔적은
컴퓨터 파일 <삭제>키를 누르기만 하면 사라진다
나의 하루는 컴퓨터 스위치를 올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을 저장시키는 것
세계는, 손 안에 있다
나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지상의 모든 도시와
땅 밑의 태양 그리고 미래의 태아들까지 연결된다



서양의 작가들은 원래 타자기를 쓰고 있어서
그 변화의 충격이 좀 덜 했겠지만...



원고지에 작품을 쓰던 한국의 작가들에게
컴퓨터 글쓰기는
예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릴리 슈슈의 모든 곳 1 / 김경주



에테르 입장

그 자연주의자의 노트에선 늘 푸른 눈이 내리고
있지

나는 늘 뇌관이 아니라 물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은 내 폐 속에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인어의
멀미에 관한 이야기

ID 비둘기우유:

나는 아무래도 아무 데로나 갈 것 같다

알 수 없는 아이다:

휘발.....

...(중략)...

ID 고래를기르는어항:

그녀를 알게 된 오늘, 비포 선라이즈에서 비포
선셋까지 살고 있다

그녀를 알게 된 오늘 비포 선라이즈에서 비포
선셋까지 살고 있다

ID 소규모아카시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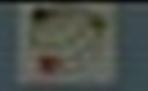
신데렐라88을 알게 되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사막이 펼쳐진다고 해

십일월엔 노란 튜립을 토하면서 시를 쓰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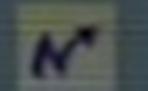
아이디 에곤실레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유달하라
1997

제3회 보이스 오브
천국은 아니다



전국민



나우뉴스



유니텔

강준희

클클시원

강준희

클클시원

강준희

클클시원

강준희

클클시원

강준희

정말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

넌 보자

무슨 일 있지? 아버지가 엄마

아니

지금 가까? 옷 입는다

넌 보자니깐...

뭔지 말해봐... 비밀?

어, 비밀. 평생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그럼... 내 비밀도 하나 알려 줄게. 말해 보



PC통신 채팅방의 낭만
기다림이 당연했던 시절
얼굴 없는 당신들과의 만남으로
밤을 지새던 시절

이름 (곳)	전화번호	전대사항
7 HITEL 14400(1)	9,766-9696	1200-N-B-1171 30400-N-B-1171
<p>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SPACE>는 다음 전화모.</p> <p>가는 곳 : HITEL 14400(1) 전화번호 : 9,766-9696 남은시간 : 27 초</p> <p>[ESC]를 누르면 그만 합니다</p>		
15 16 나우로 20800	9,517-6311	30400-N-B-1171 30400-N-B-1171

▲	PgUp	Home	V	일기 R	순서 S	철소 R	고침 E
▼	PgDn	End	☎	저장 W	찾기 F	반전 O	설명 H
이아기 동시걸기 100 초				삼일 I	지움 D	유크림 H	멈춤 T

<html><head><title>뭘 찾으세요?</title></head> / 연왕모

```
<body>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a href="http://www.spider.web/">
</a></td>
<td valign=center>
```



[...중략...]

```
<small> Copyright © 2000-3000 muolchatsu? inc. All rights reserved. <br> Copyright © 2000-
3000 muolchatsu? Corp. All rights reserved. <br>
</small>
</form>
</center></body></html>
```

웹페이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

단편시집 ... 중에서 / 하상욱



고민
하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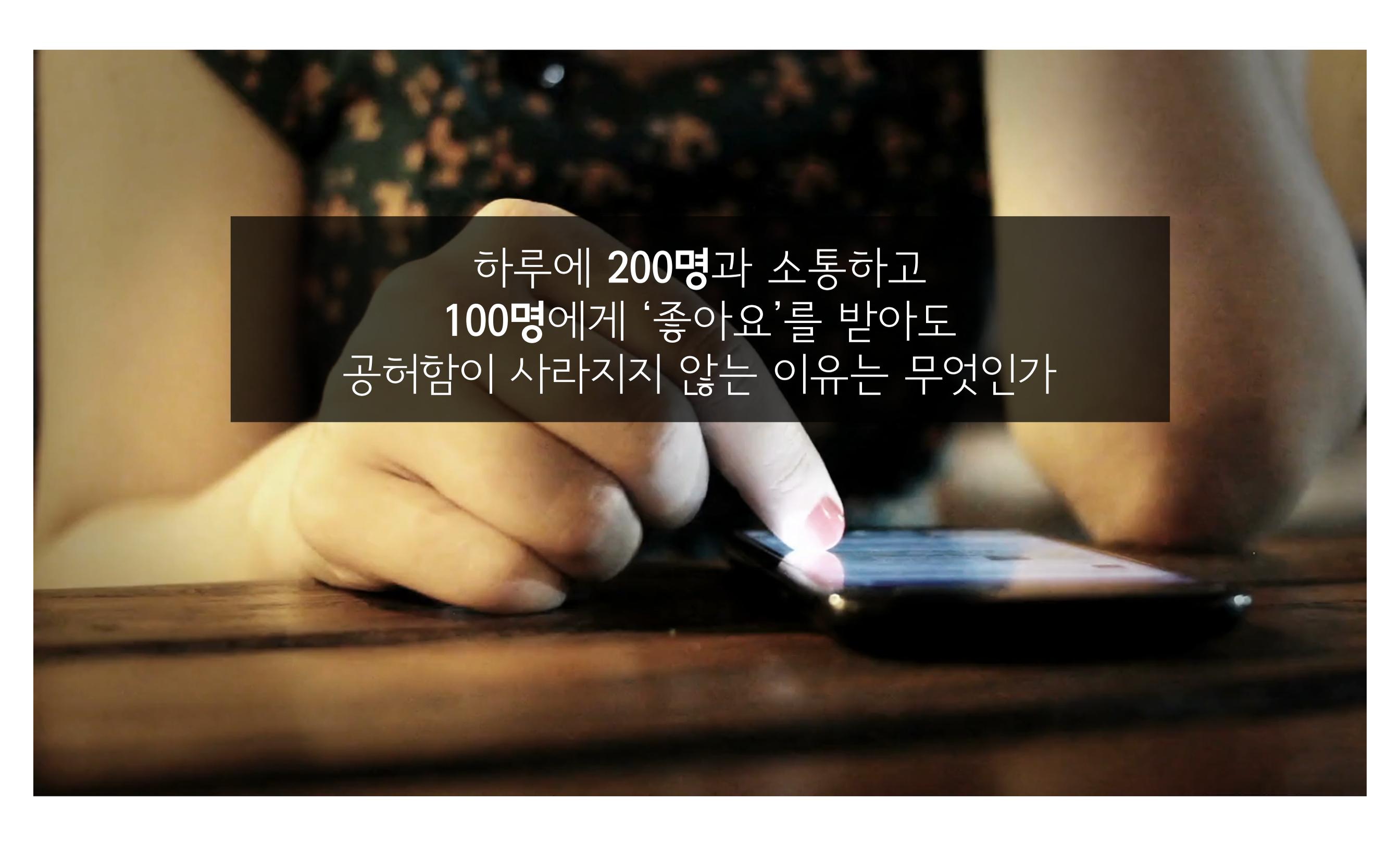
우리
둘사이

슬픈
내 모습

아픈
내 모습

진짜
싫은데

자꾸
끝리네

A close-up photograph of a person's hand with pink nail polish tapping a smartphone screen. The phone is resting on a dark wooden surface. The background is blurred, showing a person wearing a dark patterned top. A semi-transparent dark grey box is overlaid on the image,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하루에 200명과 소통하고
100명에게 '좋아요'를 받아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02

막장 드라마의 기원

욕하면서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

A woman in a pink sweater is slapping a man in a white shirt and tie in an office setting. The man has a large orange flame-like effect on his face. The background shows a bookshelf and a window.

막장 드라마?

- ㉠ 출생의 비밀 등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 ㉢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설정
- ㉡ 자극적인 장면
- ㉣ 평생 겪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짐



소포클레스, 고대 그리스 비극의 3대장

[BC 496 ~ BC 406]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시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가로서도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국가에 공헌하였다.

123편의 작품을 썼고, 비극 경연대회에 18회나 우승하였다.

대표작은 《아이아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등이 있다.



오이디푸스왕,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출생의 비밀” 내 어머니가 사실은...

“불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범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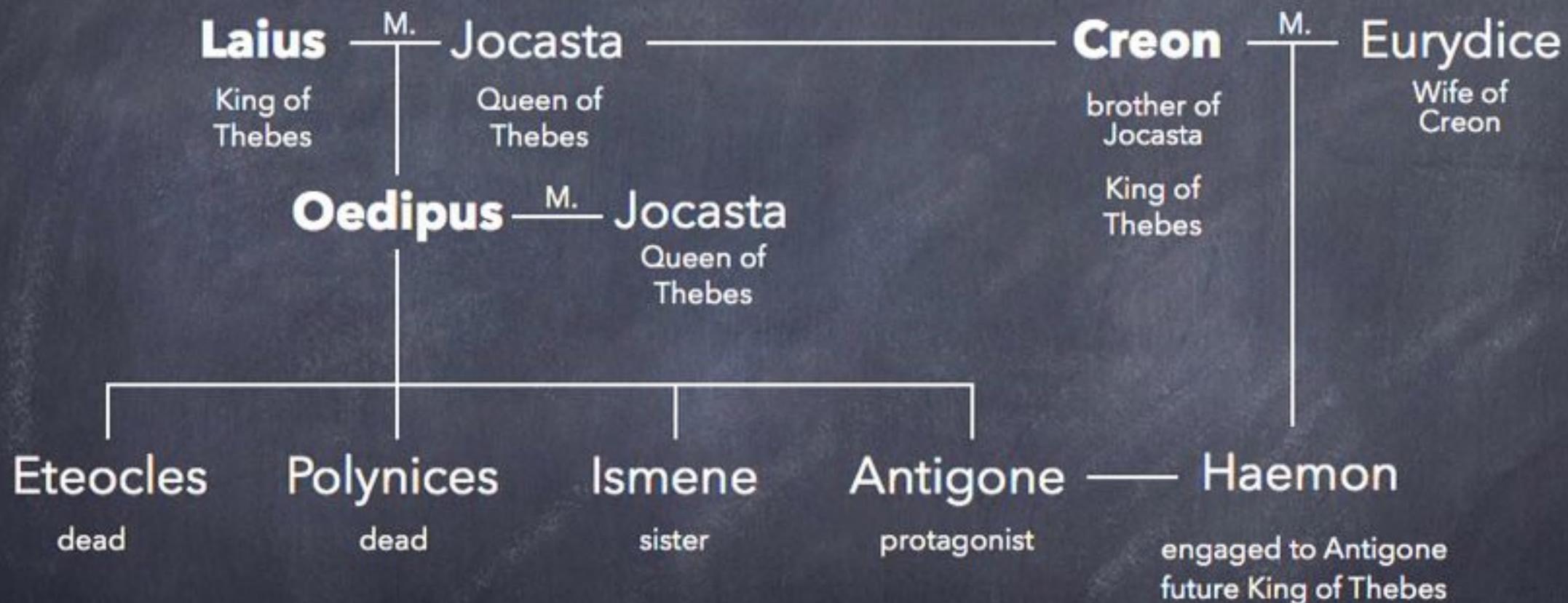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핑크스는 아름다운 얼굴과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사자의 몸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표현된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에 왔을 때 도시 교외에 있는 언덕에 �핑크스가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오이디푸스는 그 길로 �핑크스가 있는 언덕에 가서 그 수수께끼의 답이 '인간'이라고 대답했다. �핑크스는 수수께끼가 풀리자,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 일로 인하여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이 되었고, 왕이 죽고 혼자 있던 왕비를 아내로 맞이 하였다.

THE FAMILY TREE





오디푸스와 안티고네

모든 진실은 알게 된 이오카스테 왕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오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방랑의 길을 떠난다.
졸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그의 자녀들은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만
욕하면서, 다들 보고 있잖아?
원래 드라마라는 것이
극적으로 자극적이어야 할 운명이거든

A high-angle, wide shot of a grand opera house. The stage is filled with a large orchestra. The backdrop is a large, dark screen displaying a complex network of white lines and arrows, with names of composers such as STRAVINSKY, RAMEAU, HÄNDEL, VERDI, COUPERIN, BERG, LULLY, SCHUBERT, MOZART, and DANZON. The audience is seated in multiple tiers of ornate, gold-trimmed boxes and balconies. The lighting is warm and dramatic, highlighting the architectural details of the theater.

오페라가 고상한 귀족들의 문화라고?



①약혼녀의 동생을
사랑하게 된 남자, 조카의
애인을 사랑하는 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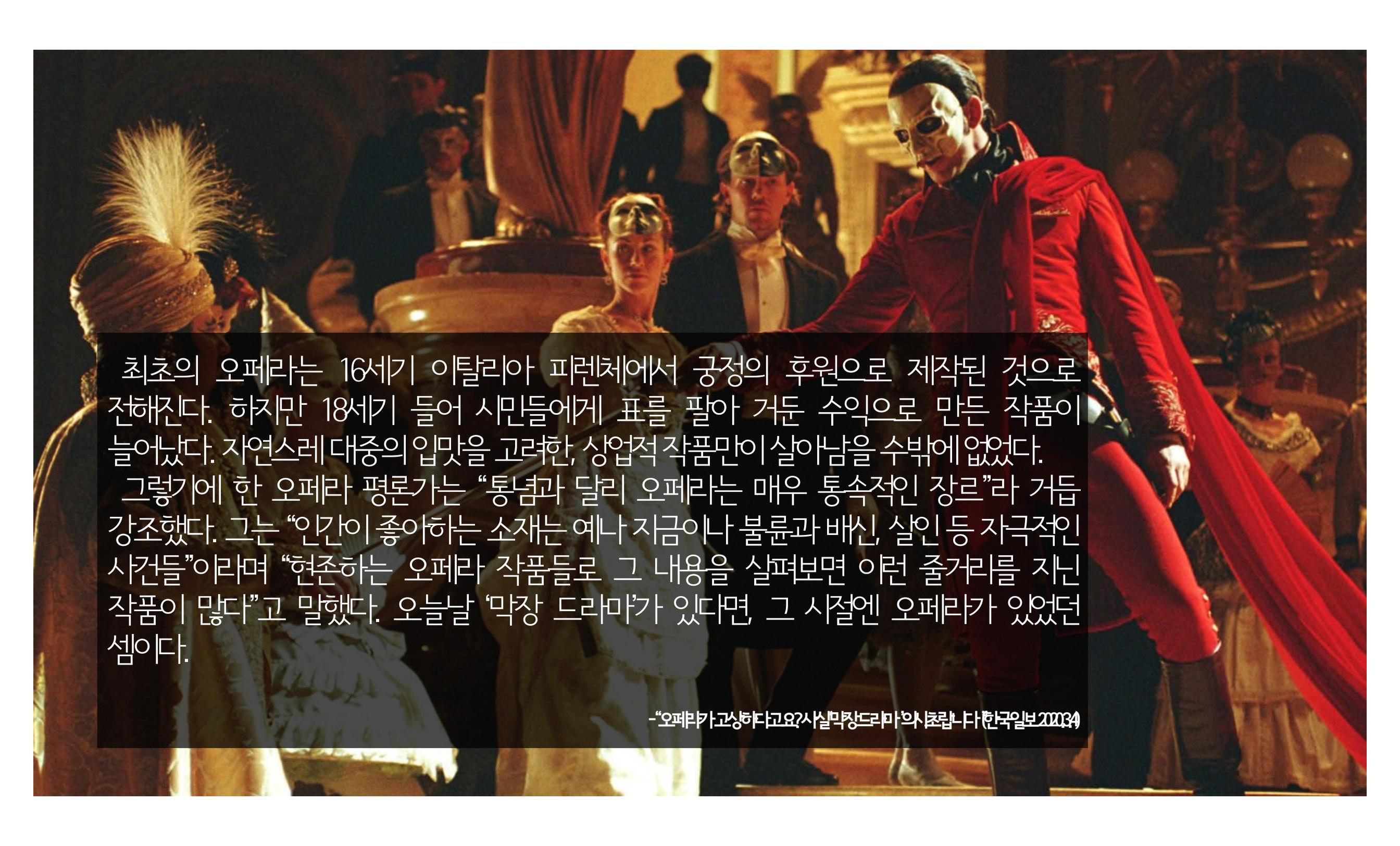
②각각 다른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된 자매

③애인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 복수로
그녀를 살해하는 오빠.

이탈리아 작곡가
치마로사의 오페라
<비밀결혼>

하이든의 <버려진 섬>

베르디의 <운명의 힘>



최초의 오페라는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궁정의 후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8세기 들어 시민들에게 표를 팔아 거둔 수익으로 만든 작품이 늘어났다. 자연스레 대중의 입맛을 고려한 상업적 작품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한 오페라 평론가는 “통념과 달리 오페라는 매우 통속적인 장르”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좋아하는 소재는 예나 지금이나 불륜과 배신, 살인 등 자극적인 사건들”이라며 “현존하는 오페라 작품들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줄거리를 지닌 작품이 많다”고 말했다. 오늘날 ‘막장 드라마가 있다면 그 시절엔 오페라가 있었던 셈이다.

-“오페라가 고상하다고요? 사실 막장 드라마와 큰림니다(한국일보 2023년 4월 24일)”

막장드라마를 욱하면서도
어쩐지 다시 보게 되는 이유 3가지

An illustration of a prince and princess in a romantic embrace. The prince, on the left, has dark hair and is wearing a white tunic with a gold collar and a gold sash. He is looking down at the princess. The princess, on the right, has blonde hair styled in a bun with a blue headband and is wearing a blue dress with a white collar. She is looking up at the prince. The background is a soft, purple and pink gradient.

신데렐라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언젠간 완벽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와 결혼을 하고
내 삶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의존적 심리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 소재로 자주 소비되는 사회 현상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신데렐라들을 보여주며 대리만족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도중에 중단된 일이 더욱 머릿속에서 맴도는 현상을
심리학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반전은 주로 드라마가 끝날 때쯤 일어납니다.
흥미진진해질 때쯤 끝이 나죠.

그럼 시청자는 다음 회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게 됩니다.
반전 서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카타르시스 효과

막장 드라마에는 퍽박 받던 주인공이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는
'사이다'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그 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김치로 뺨을 때리고,
음료수를 마시다가 갑자기 과하게 흘러버리는 기상천외한 장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자극을 받습니다.

03

금기를 뛰어넘는 사랑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1960

1924년 5월 8일 서울 출생. 경기여고를 거쳐 1943년 이화여전 가사과에서 수학했다.

1949년 김동리(金東里)의 추천으로 「얼굴」, 「정순이」를 『문예』에 발표한 후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안개」(1950), 「팬터마임」(1958)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남녀 관계의 애정 모랄을 리얼하고 감각적인 수법으로 그렸다. 기성의 도덕률에 얽매인 여성의 운명과 사랑의 심리를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발표된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젊은 느티나무」(1960)는 부모의 재혼으로 오누이가 된 남녀의 사랑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감정의 진실한 묘사로 형상화에 성공하였다.

그녀의 작품경향은 「임진강의 민들레」(1962), 「파도」(1963)에 이르면 사회와 현실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의 장편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현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리려는 작가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그녀는 문학적 소재가 다양하고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그 주제의 방향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문학적 역량을 갖춘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들은 주로 여성들의 운명적 불행과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비극을 역설적인 아름다움과 연결시키고 있다. 주제의 다변화, 상징성, 감각적인 문체의 사용 등으로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강신재
(1924.5.8. ~ 2001.5.12)

작품 소개

1960년 《사상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본연한 인간성과 사랑의 순수한 경지를 추구하는 소설을 써온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 글로서 특유의 섬세한 여성적 필치가 돋보이는 낭만주의 소설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단편소설은 여성적이고 서정적인 부드러운 어조로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준다. 또한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와 외부의 사건을 적절히 조화시켜 작품의 예술성을 살리고 있으며, 오빠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내적 독백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불쾌감을 주지 않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전처 소생의 아들과 후처가 데리고 온 딸인 그들 사이는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불행한 결말로 끝맺지 않고 시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숙희는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와 함께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서울 모(某) 대학 교수인 무슈 리와 어머니가 재혼한 후 숙희도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새 아버지의 아들로 이복 오빠가 되는 대학생 현규를 만난다. 그는 생소하고 어색해 하는 숙희에게 늘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희는 현규를 오빠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며 그를 사랑하게 된다.

작품 소개

그러던 중 숙희와 친구인 지수 사이를 오해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현규에게서 숙희는 자신에 대한 현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행복감과 고뇌를 동시에 안고 오누이에서 연인 관계가 된다. 엄마가 무슈 리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 현규와 둘이서 집에 있게 될 상황에 놓이자 숙희는 고민 끝에 시골로 간다. 그곳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현규가 찾아온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진실된 감정을 지닌 채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마음으로 각자 현재의 길을 걷자고 맹세한다. 이때 '젊은 느티나무'는 두 연인의 희망을 품은 맹세를 듣는 증인이 되며 꿈을 잃지 않는 젊음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의 내적인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에게 대해 깊은 마음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으나 쉽게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규범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갈등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두산백과)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1960

- 1 -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언제나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뛰어가서 물을 뒤집어쓰고 나오는 때면 비누 냄새가 난다. 나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 그의 표정이나 기분까지라도 넉넉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

티야쓰로 갈아입은 그는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렇게나 안락의자에 주저앉든가, 창가에 팔꿈치를 집고 서면서 나에게 빙긋 웃어 보인다.

무얼 해? 대개 이런 소리를 던진다.

그런 때에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다. 얽은 비누의 향료와 함께 가슴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 나간다—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뭘 해? 하고, 한 마디를 던져 놓고는 그는 으레 눈을 좀더 커다랗게 뜨면서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그 눈동자는 내 표정을 살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면 그보다도, 나에게 쾌활하게 웃고 떠들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어찌면 단순히 그 자신의 명랑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어느 편일까?

나는 나의 슬픔과 괴롭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 이 순간 그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알고 싶은 것이다.

그의 눈 속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비치는가?

하루해와, 하룻밤 사이, 바위를 씻는 파도 소리 같이, 가슴에 와 부딪고 또 부딪고 하던 이 한 가지 상념에 나는 일순 전신을 불살라 본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하며 애를 쓰지만 나는 역시 알 수가 없다. 그의 눈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괴롭과 슬픔은 좀더 무거운 것으로 변하면서 가슴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찰나에는 나는 그만 나의 자연스러운 위치 — 그의 누이 동생이라는, 표면으로 보아 아무 시스러움도 불안정함도 없는 나의 위치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을 깨닫는다.

인제 오우?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가 원한 듯이 아주 쾌활한 어투로, 이 경우에 어색하게 군다는 것이 얼마만한 추태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는 그도 무언지 마음 놓였다는 듯이,

응, 고단해 죽겠어. 뭐 먹을 거 좀 안 줄래?



두 다리를 쭈욱 뻗고 기지개를 켜면서 대답을 한다.

에에, 성화라니깐, 영작 숙제가 막 멋지게 씩어져 나가는 판인데——

나는 그렇게 투덜거리려 보이면서 책상 앞에서 물러난다.

어디 구경 좀 해. 여류 작가가 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보아줄께.

그는 손을 내밀며 몸까지 앞으로 썩하니 기울인다.

어머나, 싫어!

나는 노트북을 다른 책들 밑에다 잘 감추어 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뽀오얏게 얼음이 내뿜은 코카콜라와 크랙카,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내 가슴은 비밀스런 즐거움으로 높다랗게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는 왜 늘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언제나 냉장고 앞을 그냥 지나 버리고는 나에게 와서 달라고 조른다. 어떤 게으름뱅이라도 냉장고 문을 못 열 까닭은 없고, 또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면 부엌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군소리를 지껄대거나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줄곧 먹을 것을 얹지르거나 내려뜨리거나 하는 나를 움직이기보다는 쉬울 것이 확실하다.

(어쩐 셈인지 나는 이런 따위 일이 참말 서툴다. 좀 얌전하고 재빠르게 보이려고 하여도 도무지 그렇게 되질 않는다.)

쟁반을 들고 돌아와 보면 그는 창 밖의 덩굴장미께로 시선을 던지고 옆얼굴을 보이며 앉아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조용히 가라앉은 눈초리를 하고 있다. 까무레한 피부와 꽤 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참 좋아진다. 나에게서는 보이려 하지 않는, 혼자만의 표정도 무언지 가슴에 와 부딪는다.

그의 머리통은 아폴로의 그것처럼 모양이 좋다. 아주 조금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몇 올 앞이마에 드리워 있다.

고수머리는 사납다던데.

언젠가 그렇게 말하였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숙희, 정말 그렇지 않아. 하고, 그는 진심으로 변명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농담을 하였을 뿐이었는데-----.

오늘도 그는 그렇게 내 방에서 쉬고 나더니,
정구 칠까?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응.

아니, 참 내일부터 중간 시험이라구 하잖았든가?

괜찮아. 그까짓 거——.

사실 시험이고 무엇이고 없었다. 나는 옷 서랍을 덜컥거리며 흰 쇼오츠와 곤색 셔츠를 끄집어내었다.

괜히 낙제하려고. 하면서도 그는 이내 라켓을 가지러 방을 나갔다.

햇볕은 따가웠으나 나뭇잎들의 싱싱한 초록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곤 한다. 우리는 뒷산 밑 담장
계로 걸어갔다. 낡은 돌담의 좀 허수룩한 귀퉁이를 타고 넘어서 옆집 코오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옆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왕가에 속한다는 토지의 일부인데 기실 집이라고는 까마득히 떨어져서 기와집
이 두어 채 늘어서 있고 이쪽은 휘영하니 비어있는 공터였다.

그 낡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터를 무슨 뜻에선지 매일 쓸고 닦고 하여서 장판처럼 깨끗이 거 두
어 오고 있었다.

아깝게시리 —— 테니스 코오트나 만들면 좋겠는데, 응 그러면 어떨까?

어느 날 돌담에 가 걸터앉아서 내려다보던 끝에 그런 제의를 했다.

처음에는 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결국 건물계로 걸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았다.

이튿날 우리는 석회를 들고 가 금을 그었다. 또 며칠 후에는 네트를 치고 땅을 깎아 아주 정식으로 코트
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주인이 야단을 치면 걸어 버리자고 주춤거리며 일을 했는데 호호백발의 할아버
지인 그 집주인은 호령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가끔 지팡이를 끌고 나와 플레이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의 표정은 언제나 나에게서는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히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하였다. 구태어 말한다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늘
밖의 일을 생각하는 듯 아득해 보이기도 하였으니 기묘했다.

한두 번은 답을 넘는 나의 기술을 적이 바라보고 분명히 무슨 말을 할 듯이 하더니 그만 입을 봉하고 말았
다. 말을 했자 들을 법하지도 않다고 짐작을 대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곳은 아주 좋은 우리의 놀이
터인 것이다.

물리학 전공의 그는 상당히 공부에도 몰리고 있는 눈치였으나 운동을 싫어하는 샌님도 아니었다.

테니스를 나는 여기 오지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기술이 부족 는 것은 대부분 그의 덕분이다. 그가 내 시골
학교의 코우치보다도 더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나의 만족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좋아질 수 없지만 또 운동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스포츠투는 삶의 기쁨을 단적으로 맛보여 준다.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면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
미함이란 아무것에도 비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도무지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였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때면 엉망진창인 대로, 또 턱없이 좋 으면 좋은 그대로 적당히 이끌고 나가 주는 그의 솜씨가 적이 믿음직해질 따름이었다.

와아, 참 안 된다. 퇴보일로인가봐.

괜찮아. 아주 더워지기 전에 지수랑 불러서 한번 시합을 할까?

하늘이 리라빛으로 물들 무렵 우리는 별들을 주어 들고 약수터끼로 갔다.

바위틈으로 뿜어나는 물은 이가 시리도록 차갑고 광물질적으로 싹쓰름하다.

두 손으로 표주박을 만들어 떠내 가지고는 코를 틀어막고 마신다. 바위 위로 연두색 버들잎이 적이 우 아 하게 늘어지고, 빨간 꽃을 다닥다닥 붙인 이름 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펼친 것으로 보아, 이런 마심새 를 하라는 샘터는 아닌 모양 같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여 왔다.

약수라니 많이 마셔. 약의 효험이나 좀 볼지 아나?

멋 때매?

멋 때매는? 정구 좀 잘 치게 되나 보려구 그러지.

이렇게 시끌덤벙 떠들던 샘가였다. 그런데 오늘 바위 언저리에는 조그만 표주박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필시 그 할아버지가 갖다 놓아둔 것이 분명하였다.

오늘부터 암전히 마셔야 해.

산신령님이 내려다보신다.

정말 한동안 음전하게 앉아서 쉬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표주박으로 물을 뺐다.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대어 주었다. 조용한,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보이는 일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얼굴 의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를 천천히 자기가 마셨다.

그리고 표주박을 있던 자리에 도로 놓았으나 아주 짧은 사이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 덮은 것 같았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돌연 형언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어 갔으나 한 가지의 뚜렷한 감각을 놓쳐 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나는 라킷을 둘러메고 담장끼로 걸어갔다.

<오빠.>

그는 나에게서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빠.>

그것은 나에게 있어 무리와 부조리의 상징 같은 어휘이다.



그 무리와 부조리에 얽힌 존재가 나다. 나는 키보다 높은 담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원 안을 걸어갔다. 운동화를 벗어 들고 맨발로 걷는다. 까실까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잔디의 촉감이 신이나 양말을 신고 디딜 생각을 없이 한다.

발바닥에 징을 박아 줄까? 어디든지 구두 안 신고 다니게 말야.

그는 옆에 있는 때면 이런 소리를 한다.

맨발로 물위를 걸으면 고향에 온 것 같아.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말이 드는 걸...

나는 중얼중얼 그런 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나 저녁 이맘때가 되면 별안간 거의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엉클리곤 하므로 그 뒤로는 할멈처럼 입을 봉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는다.

시무룩해 가지고 테라스 앞에 오면 — 그 안 넓은 방에 깔린 자색 양탄자, 이곳 저곳에 놓인 육중한 가구, 그 안에 깃들인 신비한 정적, 이런 것들을 넘겨다보면 — 그리고 주위에 만발한 작약, 라일락의 향기, 짙어진 풀 내가 한데 엉겨 뭉?한 이 속에 와서 서면 —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별안간 아프도록 뚜렷이 보랏빛 공기 속에 떠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잠시 지녔던 유쾌함과 행복은 끝내 나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실은 나의 슬픔과 괴로 움이었다는 기묘한 도착(倒錯)을, 나는 어떻게든 처리할 길이 없다.

오누이-----

동생-----

이런 말은 내 맘속에 혐오와 공포를 자아낸다.

싫다.

확실히 내가 느껴 온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범주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 보랏빛 공기 속에서의 도착은 참 서글픈 감촉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용기조차 없어진다.

검은 눈을 껌벅이면서 그는 또 농담이라도 할 것이다. 내게 더 웃고 더 쾌활해지라고 무언중에 명령 할 것이다.

그가 내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오늘 나는 가슴속에 강렬한 기쁨을 안았던 까닭에 비참함도 더 한층 큰 것만 같았다.

나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볼을 불룩하니 해 가지고 마루로 올라갔다.

번들거리는 마룻바닥에 부연 발자국이 남아난다. 그렇게 마루가 더럽혀지는 것이 어쩐지 약간 기분 좋다. 몸을 씻고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으로 힐끗 내다보았더니 그는 등나무 밑 걸상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팔꿈치를 짚고 월계 숲계로 시선을 던진 모양이 무언지 고독한 자세 같아 보였다.



그도 조금은 괴로운 것일까? 흠, 그러나 무슨 도리가 있담? 까닭 없이 그에 대해 잔인해지면서 나는 그렇게 혼자말을 하였다.

나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밖에서 보이지 않을 구석에 가만히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주위가 훨씬 어두워진 연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한참 내 창문계를 보며 서 있었다.

나는 어느 때까지나 불을 켜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마시다 만 코오크의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아까 그가 내가 마신 표주박에 입술을 대었듯이...

- 2 -

<그>를 무어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재작년 늦겨울 새하얀 눈과 얼음에 뒤덮여서 서울의 집들이 마치 얼음 사탕처럼 반짝이던 날 므슈 리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며 이곳에 도착한 나에게 엄마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숙희의 오빠예요. 인사를 해. 이름은 현규라고 하고.

저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리과 대학의 수재란다. 우리 숙희두 시골서는 꽤 재원이라고들 하지만 서울 왔으니까 좀 어리벙벙할 테지. 사이 좋게 해 줘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벼웠으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열심히 청년의 큰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V네크의 다갈색 스웨터를 입고 그보다 얇은 빛깔의 셔츠 깃을 내 보인 그는, 짙은 눈썹과 미간 언저리에 약간 위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으나 큰 두 눈은 서늘해 보였고, 날카로움과 동시에 자신(自信)에서 오는 너그러움, 침착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해 보였다. 전체의 윤곽이 단정하면서도 억세고, 강렬한 성격의 사람일 것 같았다. 다만 턱과 목 언저리의 선이 부드럽고 델리킷하여 보였다.



<키도 어깨 폭도 표준형인 듯하고—— 흐응, 우선 수재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걸——>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채점을 하였다. 물론 겉 보매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만큼 나는 어리석은 계집애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의 눈을 쏘아보자, 그는 눈이 부신 사람 같은 표정을 하면서 입술 한쪽으로 조금 웃었다. 그것은 약간 겸연쩍은 것 같기도 하였지만, 혼자 고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보였다. 자기를 재어 보고 있는 내 맘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때문일까? 그러자 나는 반대로 날카로운 관찰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단순한 태도로,

참 잘 왔어요. 집이 이렇게 너무 쓸쓸해서 아주 좋지 못했는데—— 하고 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를 도무지 어린애로만 보았다는 증거일 게고 또 아마 엄마의 감정을 존중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에는 일순 안도와 만족의 표정이 물결처럼 퍼져 갔다. 나는 이 청년이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하였다. 말하자면 그들 인공적(?)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배려가 상호간에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므슈 리는 매우 대범한 성질이어서 만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다볼 뿐이고, 내가 고단할 거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였다.

어쨌든 그는 그로부터 나를 숙희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다.

헤이, 숙!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관대하였다. 지나칠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할 만큼.

그러므로 그가 이즈음 내 방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손 같은 데에 약을 발라 달라고 하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대단히 귀중한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그를 오빠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이유들로.

이것은 므슈 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기보다는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자기가 대단한 고집쟁이인지, 또는 부끄럼쟁이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나의 이런 곤란을 그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으로 요즈음은 내가 그 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지 않고도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 편에서 고려하여 말을 걸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양없이 나를 곤경에 몰아넣곤 하는 것은 므슈 리 한 사람뿐이다.

서울 와서 일년 남짓 지내는 새에 나는 여러 모로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 멋을 내는 방법도 배웠고 키가 커지고 살결도 희어졌다. 지난 사월에는 미스 E여고에 당선되어서 하루동안 학교의 퀸 노릇을 하였다. 바스 트가 약간 모자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오히려 놀랐다.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므슈 리는 기막히게 비싼 팔목 시계를 사 주었다.

그(현규)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 축하한다고 한번 그것도 아주 거북살스런 투로 말하고는 무언지 수줍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씩 기분이 좋았다.

삶의 기쁨이란 말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이 집의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하고, 엄마와 므슈 리와의 관계로 하여 약간 로맨틱한 색채가 감돌고 있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에서 떨어진 S촌의 숲속의 환경도 내 마음에 들고, 므슈 리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 왔다는 담장이 덩굴로 온통 뒤덮인 낡은 벽돌집도 기분에 맞는다.

그(현규)는 엄마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므슈 리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스런 얼굴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고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어느 사립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약간 뚱뚱하고 약간 호인다 와 보인다. 불란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를 므슈라고 속으로 부르고 있는 까닭은 어느 불란서 영화에서 본 한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므슈 리는 불쌍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참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 덩어리 같은 사람은 자칫하면— 주위가 나쁘면 — 엉망으로 불행해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괴테의 베르테르 같은 청년의 비극에는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므슈 리 같은 타입의 슬픔에는 오직 비참만이 있을 듯하다—— <우리 엄마가 그의 곁에 와 준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

엄마는 줄곧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나 행복해 보였고 예부터 특징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다만 엄마는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 치로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다니지도 않고 큰 소리로 웃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늘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얇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 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또한 있었다. 현규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내 맘을 무겁게 하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에는 여기 오지를 말았더라면 하고 혼자 중얼대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나는 만약 내 생애에서 한 번도 그를 만나는 일이 없이 죽고 말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한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그를 만났다는 일만으로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행복한 것이다.

그의 곁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쁨을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한 것도 사실이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일부마다 달라진다.

므슈 리가 요즘 외국을 여행 중인 것은 내게는 하나의 구원과도 같다.

아침마다 행복 그것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저녁마다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돌아오실 때까지 눈감아 줘, 응 엄마, 시간 지키는 거나 질색인 줄 알잖우? 먹고 싶은 때 먹고 안 먹고 싶은 때 안 먹고 그럴께, 응?

므슈 리가 떠나는 즉시로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교섭을 하였다. 사실 현규의 얼굴을 보는 일이 두려운 때가 점점 찾아오는 것만 같다.

그는 대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드는 모양이었다.



- 3 -

예절바른 그가 식당에서 엄마의 상대를 하고 있을 동안 나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서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다.

군데군데 작은 집들이 몰려 있는 촌락과, 풀숲과 번득이는 연못 같은 것들이 있는 넓은 들판 너머에 무디게 빛나며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푸라치니같이 반짝이기도 하고 안개처럼 온 통 보얗게 흐려 버리기도 한다. 하늘이 보랏빛으로부터 연한 잿빛으로 변하여 가는 무렵이면 그 강도 부드러운 회색 구름과 한 덩이가 되었다.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범벅이 된 혼란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내야 한다고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늘 생각 하는 것이었다.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내 맡길 수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또 그 마음가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분열된 생각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현규를 사랑한다는 일 가운데 죄의식은 없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엄마와 며수리를 그런 의미에서 배반하는 것은 곧 네 사람 전부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멸이라는 말의 캄캄하고 무서운 음향 앞에 나는 떨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다. 삼사년 전까지는 엄마와도 함께, 그리고 그 후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단 셋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고 과수원을 지키는 개도 여러 마리, 그 중에는 내가 특별히 귀여워 한 진돗개 복동도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못 견딜 만큼 적적하였다.

엄마가 서울로 떠난 후에는 마음이 막 쓰러린 것을 참아야 했지만 그 엄마가 같이 있었을 때에라도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마음 든든하다거나 정말로 유쾌하다거나 하는 느낌을 가져 본 일은 없다.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언제나 조용히 집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은 내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 그 무릎 위에는 늘 내게 지어 입힐 고운 형겅 조각이나 털실 같은 것이 얹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입에서는 늘 나에게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것이 불만하고 불안하기조차 하였다.

그런 걸 만들어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안 살림에 북이어서 때로는 악도 쓰고 나더러 야단도 치고 어린애도 둘러업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녀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도 흐뭇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도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엄마에게도 그저 유하고 부드럽기만 하였다.

엄마의 그림자 같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사변과 함께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년쯤 전에도 이미 그랬었고 또 그보다 전 서울서 국민 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도 역시 그런 느낌이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버지>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돌아가셨다>는 설명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으나 어쨌든 정말 같지 않다는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사변 후에,

너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고 할머니가 일러 주셨는데 이때의 말투에는 특별한 것이 깃들여 있어서 그 후로는 그것이 진심이거니 여기고 있다. 아마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사별하고 만 모양이었다.



어쨌든 나는 내 부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윤>이라는 내 성이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것이지만 흔한 성이라고 느낄 뿐이다.

므슈 리가 피난지에서 할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아온 것은 어떤 경위를 지난 뒤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날 나뭇가지에 걸터앉아서 사과를 베어 먹고 있노라니까 좀 뚱뚱한 낮선 신사가 걸어왔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듯이 멈추었다가 모자를 벗어 들고 걸어 들어왔다. 나무 밑을 지나갈 적에 사과씨를 떨어뜨렸더니 발을 멈추고 쳐다보았으나 웃지도 않고 그냥 가 버렸다. 도무지 어수선하기만 하다는 얼굴이었다. 나중에 방안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는데 그때의 판단으로는 나무 위로부터 환영받은 일은 까맣게 기억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룻밤 체류하지도 않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논 거리가 생긴 모양이었다. 밤에 가끔 사과밭 사이를 혼자 걷는 엄마를 보게 되었다.

므슈 리는 한번 더 다녀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는 상경하였다.

애초에 그렇게 혼인을 정했다면 애 고생을 안 시키는 걸-----

어느날 옆방에서 할머니가 우시며 수군수군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듣고 놀랐다.

그런 우리 숙희는 안 태어났을 것 아뇨? 공연한 소리-----

그저 팔자 소관이죠. 경애가 생각을 잘못 먹었다느니보다도-----

애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대는 것을 듣고 나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미소지었다.

그림자처럼 앉아서 내 블라우스 같은 것을 매만지는 엄마를 보는 서글픔은 이제 없어졌다. 엄마가 그럭저럭 행복해진 듯한 것은 기뻐으나 뼈저리게 쓸쓸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밤낮 커단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산모퉁이 길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때에도 사과나무의 흰 꽃 밑에서, 또 빨간 봉선화가 핀 마당에서도,

이애야, 그렇게 큰 소릴 내면 남들이 웃는다.

할머니는 가끔 진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셨다. 재작년 늦은 겨울 므슈 리가 내려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우거댔을 때에 제일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두 분 노인네도 더러 망설였다. 그러나 므슈 리의 끈기 있는 태도에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눈치여서, 노인네들은 그만 풀이 없었다. 나는 므슈 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엇보다 엄마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깐요. 말은 안 하지만 절실히 바라고 있는 걸 내가 아니깐요. 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싱그레 웃고 말았다. 나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설복되어서, 므슈 리가 만약 그 연설을 잠시 끊기만 한다면 이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는 마치 그들이 결단코 나를 놓지는 않으리라고 굳이 믿는 사람처럼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하면서 나를 힐끗 보았을 때 나는 조그맣게 끄떡여 보였다. 그랬더니 그는 말을 뚝 끊고 벙글 웃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았다.

이래서 나는 서울 E여고로 전학을 하였다.

나는 생각한다.

므슈 리와 엄마는 부부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현규와도 마찬가지로.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스물 두 살의 남성이고 열 여덟 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롭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싸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 4 -

숙희야, 나 이런 것 주웠는데...

일요일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소파에 앉아 있던 엄마가 손에 쥐었던 봉투 같은 것을 들어 보였다.
뭔데?

나는 가까이 갔다.

그리고 좀 검연쩍어졌지만 하는 수 없이,
어디서 주웠소, 이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다.
잠깐----- 거기 좀 앉아 보아.

엄마는 짐짓 긴장한 낯빛을 감추려고 하면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속으로 픽 하고 웃음이 나왔으나 잠자코 거기에 가 걸터앉았다.

지수는 K장관의 아들이다. 언덕 아래 만리장성 같은 우스꽝한 담을 둘러친 저택에 살고 있다. 현규랑 함께 정구를 치는 동무이고 어느 의과 대학의 학생인데 큼직큼직하고 단순하게 생겨 있었다. 지이프차에다가 유치원으로부터 고등 학교까지의 동생들을 그득 싣고 자기가 운전을 하여 가곤 한다.



나도 두어 번 그 차를 얻어 탄 일이 있다. 한번은 현규와 함께였으니까 사양할 것도 없었고 다른 한번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 굳이 싫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탔다.

작은 학생들이 오늘은 하나도 없군요.

나 있는 데까지 시간 안에 오는 놈은 태워 가지고 오고 그 밖엔 뿔뿔이 재주대로 돌아오 겁니다. 기차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가 걸맞지 않게 적이 섬세한 표현으로 러브레터를 써 보냈다고 해서 나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마의 엄숙한 표정은 역시 약간 언센스가 아닐 수 없었다.

글쎄, 이게 어디서 났을까?

등나무 밑 걸상에서

오라, 참 게다 뵈었군.

오오라, 참이 아니야. 숙희는 만사에 좀더 조심성이 있어야 해요. 운동을 하구 난 담에두 그게 뭐야? 라켓은 밤낮 오빠가 치워놓던데.

흐흥 하고 나는 웃었다.

편지 보낸 사람에게 첫째 미안한 일 아니야?

참 그래. 엄마 말이 옳아.

그리고 나는 편지를 잡아채었다.

귀중한 물건인가? 엄마 좀 읽어 봄 안되나?

읽어 봐두 괜찮아. 안되는 거라면 게다 놔둘까? 감추지.

나는 조금 성가셔졌다.

그럼 안심이군. 사실은 벌써 읽어 봤어.

아이, 엄마두.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숙희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편지에 관한 거라든지 또 그 밖의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그 요점만이라도 엄마한테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듣고 있는 사이에 나는 점점 우울해져서 잠시라도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졌다.

엄마가 언제나 숙희 편에 서서 생각하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

응.

나는 선 대답을 해 놓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모양으로 내 편에서 줄까?

엄마 힘에는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므슈 리의 힘에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아침 이슬로 무릎까지 폭삭 적시면서 경사진 풀밭을 걸어 내려갔다.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을 방향으로— 멀리 높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아카시아의 숲이니 보리밭이니 잡목 길을 지나갔다.

현규와의 사이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비관적인 상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었다. 웃고 농담을 하고 아무 것도 아닌 체 헤어지는 고통이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예사 얘기를 하여도 나는 공연히 화를 냈다. 그러면 그는 상대를 안 해주었다.

머리 위에서 새들이 우짚었다. 하늘은 깊은 바닷물 속 같이 질푸르고 나무 잎새들은 빛났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상수리 숲이 뉘의 방향을 가려 버렸으므로 나는 풀 위에 앉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세계적인 발레리어나가 되어 보석처럼 번쩍이면서 무대 위에서 그를 노려보아 줄까?(한번도 귀담아 들은 적은 없지만 내 발레 선생은 늘 나에게 야심을 가지라고 충동을 한다.)

그러면 그는 평범한 못생긴 와이프를 데리고 보러 왔다가 가슴이 아파질 터이지. 아주 짧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생각인 듯 내 맘속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졌다. 그리고는 이어 그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를 말고 식모처럼 그저 봉사만 하는 일에 감사를 느끼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슬픈 마음이 들기도 전에 발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다.

나는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와삭거리고 풀 헤치는 소리가 등뒤에서 나며 늘씬하게 생긴 세터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줄을 쥐고 지수가 걸어왔다. 건강한 체구에 연회색 스포츠웨어가 잘 어울린다. 그의 뒤에서 열 살 전후의 사내아와 계집아이가 둘 장난을 치면서 달려나왔다. 지수는 나를 보고 좀 당황한 듯하였으나 이내 흰 이를 보이고 웃으면서 다가왔다.

안녕하셨어요? 산뵙니까?

네,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를 새에 두고 떠들어대면서 잡기 내기를 한다. 지수는 한 아이를 붙들어 세터를 맨 줄을 들려주고는 어서 앞으로들 가라고 손짓하였다.

우리는 잠자코 한동안 함께 걸었다. 아카시아의 숲새 길에서 그는 앞을 향한 채 불쑥, 편지 보아 주셨소? 하고, 겸연쩍은 듯한 소리를 내었다.

네.

회답은 안 주세요?

나는,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했다.

그는 성급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귀가 좀 빨개진 것 같았다.



그러나 여하간 제 의사를 알려주시긴 했겠죠?

나는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서 현규가 가까이 또 정구를 치자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네, 가죠. 그도 단번에 기운을 회복하며 대답하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의 휘파람을 들으며 집 가까이까지 왔다.

오늘 대단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슬픈 어조로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내 어깨로 기어오르는 풀벌레를 떨구어 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구 연습 많이 하세요. 저희들 팀은 아주 세졌으니깐요.

그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듯 입술을 문 채 끄떡끄떡 하였다.

잡석을 접은 좁단 층계를 뛰어오르자, 나는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갔다. 지수가 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어쨌건 기운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다. 나는 기운차게 반쯤 열린 도어를 밀치고 들어선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현규가 이쪽을 보며 서 있었다. 내가 없을 때에 그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라 해서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몹시 화를 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맹렬한 기세에 나는 주춤한 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어딜 갔다 왔어?

낮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한다.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그는 한발 한발 다가와서, 내 얼굴이 그 가슴에 닿을 만큼 가까이 섰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죽어도 말을 할까 보냐고 생각했다.

별안간 그의 팔이 쳐 들리더니 내 뺨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화끈하고 불이 일었다. 대번에 눈물이 빙글 돌았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 버렸다.

나는 멍청하니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연회색 샴시름 입을 지수가 숲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가 풀벌레를 털어 주던 자리도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보였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 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것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 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 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 5 -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 속을 산보하였다.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안겨 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알 수 없어진다.
여하간 나는 숲 속에 가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기다린다고 안방으로 가라고 했다. 요즈음 인사도 않고 나가고 들어오던 나는 우선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다.

인제 오니? 그런데 얼굴이 파랗구나. 어디 나쁜 것 아닌가?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오빠는 밤늦어야 돌아오고 숙희도 이렇게 부르지 않음 보기 어렵고-----

엄마는 조금 웃었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웃음 같았다.

-----편지가 왔는데 어찌면 엄마가 미국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일년이나 아마 그쯤은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숙희하고 오빠를 버리고 가기도 어렵고-----그래 싫다고 몇 번이나 회답을 냈지만-----

엄마는 조금 외면을 하였다.

어떨까? 오빠는 찬성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내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이라도 의논하지. 큰댁 할머니더러 와 계셔 달랄까? 그 래도 미덥잖긴 마찬가지고-----

큰댁의 꼬부랑 할머니는 사실 오나 마나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없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



현규와 단 둘이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었다.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이미 숲 속에 가지 않는 것쯤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벅찬 일이 생기고야 말 것이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온 신경은 가엾은 상처처럼 어디를 조금만 건드려도 피를 흘렸다.

며칠이 지나니까 나는 더 견딜 수 없어졌다. 할머니한테 갔다 온다고 우겨대어서 서울을 떠났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다시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삶은 일단 여기서 끝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만 이 모든 일이 수습될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러나 다른 무슨 일을 내 머리로 생각해 낼 수 있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나는 뒷산에 올라갔다.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여승들의 절이 있다. 나는 절이라는 곳이 몹시 싫었으나 거기를 좀더 지나가면 맘에 드는 장소가 나타났다. 들장미의 덤불과 젊은 나무들의 초록이 바람을 바로 맞는 등성이었다.

바람을 받으면서 앉아 있곤 하였다. 젊은 느티나무의 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얽은 훈향이 흩어지곤 하였다.

터어키즈 블루의 원피스 자락 위에 흰 꽃잎은 찬란한 하늘 밑에서 이내 색이 바래고 초라하게 말려들었다.

그리고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다음 찰나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다.

현규였다.

그는 급한 비탈을 올라오고 있었다. 입을 일자로 다물고 언젠가처럼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일자로 다문 입은 좀 슬퍼 보여서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그가 이삼 미터의 거리까지 와서 멈추었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 편으로 내달은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동치를 붙든 것이었다.

그래, 숙희,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는 자기도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무언지 참담한 것이 있었다.

숙희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든 다 잊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테니까 집은 남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생각해 놓고, 숙희도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숙희,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 말을 알아 들어줄까?

그는 두 발로 땅을 꼭 딛고 서서 말하였다. 나는 느티나무를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의 일은 우리에게서 어찌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정하고는 살아가 지도 못할 게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 우리에게 길이 없지 않아. 외국엘 가든지 ——

그는 부르짖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 줄까, 숙희?



나는 눈물을 그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는 억지로처럼 조금 미소하였다.

그리고 빙글 몸을 돌려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 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끝)

제 점수는요!

Band에 접속 하셔서, 강신재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에 대해서 자신만의
평점과 그 이유를 간략히 써 주세요.



04

작품 비평과 피드백

가능한 연구 주제들과 실제 비평 예시

생각해 볼 주제들

- 주인공이 양아버지를 ‘므슈 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설을 시작하는 첫 문장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나?
- 주인공의 사랑은 응원받을 수 있을까? 나라면 응원할 수 있을까?
- 내가 주인공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소설의 결말,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학생 비평문

*

예시1



남매 사이의 금지된 ‘위험한 사랑’이라는 다소 충격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신재는 숙희라는 소녀의 시각에서 다소 유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애정에 눈을 뜨고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복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주인공 숙희를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로서 독자들은 숙희가 오빠에게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통속적인 치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사춘기 소녀가 순수하게 느끼는 청순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작가는 숙희와 현규의 사랑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복 남매여도 어떻게 한 집안에서 형제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목소리 높여 준엄하게 비판하지도 않는다. 작가는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옆집 노인네처럼 한창 예쁠 시기인 그들을 관조하는 자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긍정적인 자세로 응원까지 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가 이들의 사랑을 기성세대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비판하고자 바라봤다면, 여류작가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안방 구조의 공간 배치를 사용해 비밀스럽고 금기 시되는 좁은 곳에 둘을 가둬놓아 3류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상황을 구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스킨십도 더욱 적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려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외출 패턴을 이용한 공간의 넓힘을 통해 자연 환경을 하늘, 나무, 샘터, 그리고 풀밭까지 수용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학생 비평문 *

예시 1



그리고 이렇게 무한하고 드넓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연 속에서 그들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병적이고 퇴폐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해가 뜨고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순수한 애정의 감정을 적극적이고 농도 짙은 스킨십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소녀 같은 스킨십으로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들은 집의 뒷산 밑 담장계의 낡은 돌담의 허수룩한 귀퉁이를 타고 넘어서 비어 있는 공터를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숙희와 현규는 옆집과의 담벽이 가로 지를 수 없는 완벽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낡고 헐어서 그것을 넘어 보다 넓은 자연적 공간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들이 결국에는 세속적인 제도나 관습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긍정적인 시선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비어 있는 공터에서 테니스를 치며 자유롭게 뛰놀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작가는 옆집 늙은 할아버지가 이들을 지켜보듯이 부드럽고 수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선에는 어떠한 비판도 비난도 없다. 그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신기하게 바라보며 순수한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응시함으로써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비평문

*

예시2



작가는 먼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규의 절대적인 심리를 알 수가 없다. 단지 주인공이 현규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해석한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주인공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공은 현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스캔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에서 파생되는 스릴감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현규가 이복오빠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복오빠라는 소재를 통해 사랑에 특별함이 부여되었다.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어떠한 희열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 현규에 대한 감정이 더 배가되는지도 모르겠다.

작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작가는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열린 결말을 설정하여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제시해 주지 않았지만, 열린 결말이 결국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작가는 소설의 배경을 전쟁직후의 상황으로 설정했다. 즉, 당시 사회가 사랑의 파멸을 증명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근친 관계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 사회에 대한 반항 더불어 운명에 대한 반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학생 비평문 *

예시2

만일 숙희에 대한 현규의 감정이 당시에 진실한 것이었다고 해도, 현규와 숙희는 모두 어렸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실제적인 것을 직시하게 된다면 그 감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하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래서 현규도 미래를 기약한 것이 아닐까.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널 사랑한다면 너와 도피하겠어.’ 라는 속내가 담겨있는 약속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감정으로서는 결단을 내리기엔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이 더 소중하지만 숙희 또한 탐났기 때문에, 그저 도피하듯이 저지른 약속이 아닐까. 그리고 숙희는 그것을 기뻐하며 믿어버린다. 그러나 숙희 본인의 감정 또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아직 불완전하며 작가가 두 이복 남매의 사랑에 완전히 긍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핵심 개념의 이해

- 가상세계는 이제 현실과 공존하는, 실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되었다.
-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디지털 시대의 영향 속에 놓여 있으며 글을 쓰고 읽고 유통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지만, 대중적 드라마의 극적 요소는 아주 아주 오래된 동서고금의 기본 레파토리이다.
- 고대 그리스 비극은 신과 운명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렸지만, 현대의 소설과 영화, 드라마는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다양한 인물을 그리고 있다.
- 강신재는 참신한 문체를 통해 금기를 뛰어넘는 사랑을 통속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형상화하였다.

14주차 과제

소설 <젊은 느티나무>를 읽고, 토론해 볼 만한 주제 하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강의 중에 소개된 주제 목록 중에서 선택해도 되고, 별도의 주제를 직접 선정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 1 작품 평가와 그 이유
- 2 주제에 대한 견해
- 내용 구성 및 형식은 자유롭게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 공지 확인하세요)

